

No.

No.

20 30 년 에 는 투 명 망 토 가 나 을 까 ? 를 읽 고

계 성 초 등 학 교

창 밖 에 서 밝 은 햇 빛 이 쏘 아 저 들 어 왔

다 . 나 는 눈 을 비 비 고 하 품 을 한 뒤

침 대 에 서 몸 을 일 으 켜 다 . 어 제 밤 늦 게

10×20

10×20

까 지 전 자 종 이 로 자 동 차 경 주 게 임 을
 해 서 그 런 지 몸 이 피 곤 했 다 이 불 정 리
 는 청 소 로 붓 에 게 말 기 고 곧 바 로 화 장
 실 로 향 하 였 다 그 리 고 아 침 마 다 하 는
 샴 위 를 준 비 하 였 다 스 마 트 샴 위 기 는 다
 양 한 은 갓 소 리 를 내 더 니, 곧 파 뚫 한
 물 이 퍼 분 기 시 각 하 였 다 난 안 도 의 한
 숨 을 쉬 고 샴 위 를 하 였 다
 샴 위 를 다 한 후, 난 몸 에 수 건 을 들
 러 싸 고 화 장 실 에 서 나 와 옷 장 거 을 에

손 가 락 을 댔 다 , 그 랐 더 니 거 을 위 에 뉴
 스 와 날 씨 등 이 는 앞 에 땀 다 . 난 그
 런 것 은 다 밀 어 내 고 , 위 에 는 스 웨 터 ,
 밑 에 는 청 바 지 를 걸 치 며 단 짝 친 구 토
 마 스 에 게 영 상 통 회 를 걸 었 다 , 그 는 즉 시
 받 았 으 며 , 거 을 에 토 마 스 의 얼 굴 이 크 게
 땀 다 . 토 마 스 의 금 발 머 리 는 단 정 하 게
 빛 거 있 었 고 , 뽕 에 서 는 로 붓 이 가 방 안
 에 책 을 빙 어 주 고 있 었 다 , " 학 교 같
 준 비 는 했 니 ? 네 가 금 방 일 어 난 것 처

럼		보	며	서	.	"	토	마	스	는		장	난	스	리	은		투	로
말	하	였	다	.	나	도		웃	으	며		대	답	했	다	.	"	나	
금	방		샤	워	해	서		그	래	.	학	교	에	서		봐	!		맞
다	.	숙	제	는		다		했	냐	?	"	"	사	실	은		숙	제	를
로	붓	에	게		말	기	고	,	지	금		그		과	제	를		가	방
안	에		뒹	어	주	고		있	어	.	"	토	마	스	와		나	는	
키	득	거	리	며		영	상		통	화	는		끝	났	다	.	난		얼
른		학	교	에		갈		준	비	를		하	고		책	상		위	에
있	는		캡	슐	을		삼	키	며		집	을		나	섰	다	.	캡	슐
한		알	에	는		아	침	으	로		필	요	한		영	양	소	가	

다		들	어	있	었	기		때	문	에		한		말	이	면		흥	분
하	였	다	.	그		당	시		어	린	이	에	게	도		문	전	면	히
증	이		주	어	진	지		결	마		안	되	었	다	.	난		자	동
차	에		시	등	을		결	자		공	증	에		프	는		느	낌	을
들	었	다	.	그	런	데		학	교	에		가		토	마	스	를		만
날		생	각	에		신	이		나		패	탈	을		세	게		뵈	었
더	니		자	동	차	가		공	증	으	르		을	라	갔	다	.	야	외
로		나	가	자	마	자		주	변	에	서		일	어	나	고		있	던
일	들	이		시	야	에		들	어	왔	다	.	출	근	하	기		위	해
프	는		모	노	레	일	을		오	르	고		있	던		어	른	들	.

진	자	종	이		아	외	장	에	서		오	락	을		하	는		유	치					
원	생	들	.		어	느	새		보	니		자	동	차	가		학	교		앞				
에		떠			있	었	다	.		자	를		굽	하	게		세	우	고		스			
간	이	등			박	스			안	에		을	라	탔	터	니		문	이		열			
린		뒤	에	는		교	실			안	에		서	있	었	다	.		교	실				
앞	쪽	에	서	는		토	마	스	가			웃	음	을			지	으	며		존			
을		흔	들	고			있	었	다	.		나	도			웃	으	며		그	에	게		
다	가	가			자	리	에			앉	았	다	.			팔	은		좀		어	퍼		
니	?			몇	일			전	에			네	가			공	중	뜨	기		를	러	스	
케	이	트	를			타	다	가			꽤	은			팔	...		"	난			토	마	스

에	게		물	었	다	.	토	마	스	는		인		팔	을		접	으	며	
말	하	였	다	.		"	로	봇		팔	로		고	정	한		뒤	로	부	터
훨	씬		나	아	.	"	그	는		웃	으	며		말	하	였	다	.	교	
실		안	에	는		그	때		10	명	의		아	이	들	밖	에		없	
었	을		때	이	다	.	로	봇		선	생	님	이		교	실		안	에	
들	어	서	서		먹	자		시	간	이	라	고		하	자	,	난		얼	
른		뒤	를		들	아		책	상		아	래	에	서		전	자	책	을	
꺼	내	며		선	생	님	을		응	시	하	였	다	.	로	봇		선	생	
님	께	서	는		이	야	기	를		시	작	하	셨	다	.	"	10	년		
전	만		해	도		여	기	는		지	금		시	대	와		매	우		

달 탔 어 요 . 전 자 종 이 나 로 북 도 없 었 고 , 물
 른 수 업 을 활 매 는 증 이 로 된 교 과 서
 나 책 을 썼 조 . 하 지 만 자 연 적 인 문 제 는
 지 금 이 더 악 화 되 었 다 고 볼 수 있 다 고
 해 요 . " 그 문 제 를 해 결 하 기 위 해 서 는
 어 떻 게 하 나 요 ? " 언 제 나 궁 금 증 이 많 은
 토 마 스 가 킬 문 하 였 다 . 로 북 은 " 지 금 과 옛
 날 은 들 다 자 원 을 잃 어 가 조 . 철 , 은 ,
 납 , 알 루 미 뇨 , 네 오 디 움 , 란 타 념 등 을 말
 하 는 것 이 예 요 . 그 런 데 문 제 를 해 결 하 기

위 해 서 는 자 원 을 아 께 쓰 기 나 신 도 시 개

발 도 도 움 이 되 죠 . 자 세 한 정 보 를 위 해

서 는 두 뇌 칩 을 사 용 해 주 세 요 . " 라 고

대 답 하 였 다 . 토 마 스 는 말 없 이 두 뇌 칩 을

꺼 내 슬 짝 머 리 에 꽂 아 주 었 다 . 늘 그 랐

듯 이 .

" 얼 른 와 , 느 림 보 야 . 내 타 임 머 신 기

게 를 사 용 해 보 고 싶 다 고 하 지 는 않 았

니 ? " 토 마 스 가 나 를 앞 질 러 뛰 어 가 며

말 하 였 다 . 학 교 는 끝 나 고 난 토 마 스 네

집 으 로 향 하 고 있 었 다 . 난 토 마 스 를 파
 라 잡 기 위 해 서 혁 혁 대 며 공 원 을 가 르 질
 러 달 렸 다 . 토 마 스 네 가 족 은 엄 청 난 부
 자 다 . 그 래 서 켜 만 한 것 은 다 있 다 . 게
 다 가 이 제 나 은 지 얼마 만 된 타 임 머 신
 까 지 산 토 마 스 . 그 애 한 태 는 없 는 것
 이 있 을 까 ? 드 디 어 토 마 스 의 집 에 도
 착 을 하 였 고 , 현 관 문 에 서 토 마 스 의 얼 굴
 이 인 식 되 자 마 자 문 을 열 렸 다 . 난 케 다
 란 상 자 앞 으 로 걸 어 가 멈 추 었 다 . “ 그

러 니 까 이 것 이 그 말 로 만 듣 던 타 임 머
 신 이 란 말 이 지 ? " 토 마 스 는 자 랑 스 러 운
 듯 고 개 를 여 러 번 끄 덕 였 다 . 난 상 자
 주 변 을 돌 며 옆 면 을 만 저 보 았 다 . 그 런
 데 옆 에 책 상 위 에 있 던 작 은 통 이
 는 에 들 이 왔 다 . 토 마 스 는 먼 저 와 서 소
 개 를 해 주 았 다 . " 이 것 은 나 노 붓 이 라는
 기 야 . 로 붓 이 사 람 의 몸 을 치 료 하 도 록
 하 는 기 계 이 지 . 이 건 우 리 아 바 가 돈 을
 엄 청 나 게 많 이 주 고 산 기 야 . " 나 노 붓 은

마 치 작 은 점 처 럼 보 였 다 . 보 이 지 도 않
 을 정 도 였 다 . 사 람 이 어 땀 게 저 런 것 을
 볼 수 있 을 지 고 민 하 던 사 이 에 토 마 스
 가 함 박 웃 음 을 지 으 며 말 하 였 다 . " 일 단
 간 식 을 좀 얻 어 먹 을 까 ? " 질 문 에 딱 대
 답 하 려 는 수 간 이 었 다 .
 " 덜 런 , 일 른 일 이 나 지 못 해 ? " 낮 익 은
 목 소 리 가 가 까 이 에 서 들 려 왔 다 . 엄 마 다
 는 을 프 니 엄 마 의 일 쿨 이 보 였 다 . " 아
 니 , 애 는 만 번 수 친 번 을 불 러 도 안

일 어 나 고 ... 빨 리 세 수 해 ! " 엄 마 는 신 경
 질 을 내 며 문 밖 을 나 갔 다 . 난 손 을 배
 게 아 래 놓 고 생 각 했 다 . 다 꿈 이 었 던 것
 이 다 . 두 뇌 칩 도 , 루 봇 도 , 캡 술 도 다 내
 상 상 의 일 부 였 던 것 이 다 . 어 찌 하 버 미 래
 에 는 그 런 멋 진 것 들 이 많 을 수 있 었
 을 까 ? 그 때 이 런 생 각 이 들 었 다 . ' 어 찌
 면 지 금 이 더 좋 을 지 도 몰 라 . ' 생 각 해
 보 니 미 래 는 사 람 들 이 너 무 기 게 증 심
 으 로 발 전 된 것 같 았 다 . 원 래 인 간 은

실 수를 통 하여 배워 가고 실 아 가 는 것 인

를 알 았 는 데 ... 인 간 조 차 로 북 처 럼 변 해

있 었 다 . 지 금 처 럼 가 족 과 친 구 랑 함 께

조 화 를 이 루 어 가 며 사 는 것 이 낫 다 는

생 각 도 들 었 다 . 그 때 전 화 가 왔 다 . 토 마

스 뻤 다 . " 넌 학 교 에 으 니 , 아 으 니 ? "

토 마 스 가 물 었 다 . 난 웃 으 며 대 답 했 다 .

" 금 방 끝 게 ! " 이 번 에 는 로 북 대 신 내

가 이 불 정 리 를 하 았 다 .

미래에서 온 편지

< 2030년에는 두 명 망토가 나을 까를

읽고 >

계성초등학교 6학년

얼마전 얼마게서는 '백투더 퓨처'라

는 영화에 대하여 말씀해주셨다. '백투

더 퓨처 '라는 영화는 엄마께서 네 나
 이 때에 보셨던 영화이다. 백투더 퓨처
 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2015
 년의 모습을 담고있다. 몇가지는 실현이
 안된 것도 있겠지만, 세네가지 정도는
 실현이 되었다고 한다. 첫 번째로는 '하늘
 을 나는 보드'이다. 최근 3cm 정도를
 떠오르는 보드가 실제로 개발이 되었다
 고 한다. 두 번째로는 직접 사진 같은 것을
 찍고,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안경이다.

영화에 나왔던 이 흥미진진한 안경은
 최근 구글 클래스가 개발되면서 실현이
 되었다고 한다. 세 번째로 영상으로 통화
 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. 이 기능은 최
 근 스마트폰에 영상통화 할 수 있는 기능
 이 추가되면서 실현되었다. 그리고 마지
 막으로, 하늘을 나는 자동차이다. 이 자
 동차는 며칠 전 구글에서 하늘을 나는
 자동차가 개발이 되어 이 자동차 역시
 실현이 되었다고 한다.

'백 투 더 퓨처' 처럼 미래를 예측하고
 탐구하는 일을 '미래학' 이라고 한다.
 그리고 미래학을 배우고 미래에 대하여
 연구하는 사람을 미래학자라고 한다고
 한다. 이 내용을 읽으며 미래학이란 게
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.
 < 2030년에는 투명망토가 나올까 >
 라는 책은 우리에게 2030년이 보내
 는 편지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다. 나는
 이 책의 내용들 중에서 식량문제에 대

한 클 을 관심 있게 읽었다. 아마 내가
 이 내용을 가장 관심 있게 읽은 이유는
 우리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것 중 하
 나가 식량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
 같다.
 2030년에는 지금보다 약 10억명
 정도가 더 살고 있을 것이다. 지금도 굶
 주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미래에는
 얼마나 더 심할까라는 생각에 걱정이
 되었다. 다행이도, 미래에는 더 좋은 지

하 발 이 많 아 생 제 날 것 이 라고 한 다 , 지

하 발 은 식 물 이 자 라 기 에 좋 은 환 경 이

구 성 되 어 있 어 서 , 생 산 량 을 늘 리 고 길 좋

은 식 물 을 재 배 할 수 있 을 것 이 다 . 어 른

이 되 면 꼭 지 하 발 에 서 재 배 한 채 소 를

꼭 먹 어 보 아 야 겠 다 .

미 래 에 는 몸 에 좋 고 , 머 리 에 까 지 좋 은

건 강 식 품 이 많 이 나 온 다 고 한 다 . 설탕 이

없 이 도 단 사 탕 , 쌀 이 빠 지 는 과 자 등

좋 은 식 품 이 많 이 생 제 날 것 이 다 , 난

	먹	으	면		살	이		빠	지	는		음	식	을		꼭		내	
No.	동	생		운	하	에	게		주	고	싶	다		요	즘		운	하	가
	특		튀	어	나	온		뱃	살	때	문	에		스	트	레	스	를	반
	고		있	기	때	문	이	다	,										
	우	리	가		마	시	는		물		역	시		미	래	에	는		부
	족	해	질		것	이	다	,	지	금	도		우	리	나	라		뿐	만
	아	니	라		미	국		조	차	도		물		부	족	을		겪	고
	있	다	고		한	다	,	지	금	도		물	이		부	족	한	데	,
	래	에	는		얼	마	나		심	할	까	?		다	행	이		유	명
	발	명	가	인		'	딘	게	이	먼	'		아	저	씨	가		이	문
																			제

해결하여 줄 수 있을 것 같다. , 아버지

는 바닷물을 정수하여 100명이 마실

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셨다. 이 기계는

지금 은 매우 비싸지만 점차 실용화

된다면 큰 도움을 줄 것이다. .

식량문제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

발명품은 '요리봇'이다, 요리봇은 주방에

서 요리를 해주어서 엄마의 수고를 최

소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. .

그러나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발명도

되 어 도 지 구 가 아 프 다 면 무 슨 소 용 이
 있 을 까 ? 지 금 도 지 구 는 공 장 에 서 뿜 어 대
 는 매 연 과 쓰레 기 , 온 난 화 로 고 통 받 고
 있 다 . 지 금 부 터 라 도 지 구 의 환 경 을 보 호
 하 려 노 력 해 야 겠 다 . 2 0 3 0 년 에 태 어 난
 후 손 들 이 아 픈 지 구 말 고 깨끗 한 지 구 에 서
 살 수 있 도 록 말 이 다 .